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26호 [루게 제24904호] 주제 104(2015)년 5월 6일 (수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백두의 녀과 기상안고 조선속도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자

굴지의 철광석생산기지인 무산광산련합기업소에 창조와 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 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에 산악같이 펼쳐나선 무산의 로동계급은 긴장한 생산전투를 벌이며 장거리벨트콘베아 《나》선과 수천t페석광사 활황을 이룩하였다.

장거리벨트콘베아 《나》선, 수천t페석광사가 일떠서 정상 운영에 들어감으로써 개관확장된 선광장들에 조광을 원만히 보장하고 선광과정에 신발된 폐석을 제때에 처리할수 있게 되었다. 결과 철정광생산을 증진

10월의 대추전장을 향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에서 이룩된 또 하나의 자랑찬 성과 무산광산련합기업소에서 장거리벨트콘베아 《나》선과 수천t페석광사 훌륭히 건설, 운영 시작

보다 배로 끌어올릴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무산광산련합기업소는 우리 나라 금속공업의 생명선이다.》

당의 요구라면 산악도 떠올리고 아바는 무산로동계급의 결사관철의 정신은 철산봉에

으로 눈부신 현실을 펼쳐놓았다. 조광을 폭포처럼 쏟아내는 장거리벨트콘베아 수송선과 운송기에 의해 실시간감시 및 조종되었다. 벨트콘베아와 페석광사의 전력계통도 련합기업소의 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구성되었다.

새로 일떠선 장거리벨트콘베아 《나》선, 수천t페석광사의 현대화수준도 매우 높다. 정보산

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조광량조절과 벨트콘베아수동 및 정지를 비롯하여 전반적인 공정들이 컴퓨터에 의해 실시간감시 및 조종되었다. 벨트콘베아와 페석광사의 전력계통도 련합기업소의 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구성되었다.

무산의 로동계급이 이처럼 방대한 장거리벨트콘베아 《나》선, 수천t페석광사공사를 자

의 힘과 기술로 짧은 기간에 끝내고 정상운영하고있는것은 참으로 자랑할만 한 일이다.

주제 98(2009)년 2월 북방의 강추위로 아팠것지 않았고 찬산봉에 오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과 혁명을 무한히 추창한 무산의 로동계급이 지난 기간 자력갱생, 고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제철소들에 질풍은 철정광

을 충분히 생산공급함으로써 자립적인 주제 공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높이 평가해주셨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광산을 전당성있게 꾸려 세계적인 철광석생산기지로 전변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 실현을 위한 방략과 방도를 주체적으로 밝혀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대로 무산광산련합기업소에서 철정광생산능력을 끌어올리는 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료해하시고 다

과 로동자, 기술자들도 복잡한 동력선공사를 짧은 기간에 해쳐 전반적인 공사기일을 앞당기는데 이바지하였다.

련합기업소의 기술집단이 장거리벨트콘베아 《나》선과 수천t페석광사건설에서 큰 몫을 맡아 해졌다.

실제연구소의 기술집단은 페석광사설계를 우리 식으로 새롭게 하였으며 자동화와 자동화장치의 기술집단은 지철출 모르그를 개발하여 장거리벨트콘베아 《나》선과 수천t페석광사운영을 컴퓨터로 감시 및 조종할수 있게 하였다.

도검정소를 비롯한 많은 단위들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에 펼쳐나선 무산의 로동계급을 물심장면으로 지원하였다.

련합기업소에서는 장거리벨트콘베아 《나》선공사와 함께 장거리벨트콘베아 《가》선기술개



과학기술전당건설을 전당적, 전국가적, 전인민적인 사업으로 힘있게 밀고나감에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새로운 평양정신, 평양속도창조의 기상이 세계에 내세우는 쏘집전역에 온 나라 인민들의 뜨거운 애국충정의 마음이 끓어올라 달려가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선군혁명의 한길에서 우리 당과 사상과 뜻을 같이하고 성과를 함께 하며 조국과 인민을 위해 헌신하는 진정한 동지가 되고 일심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지난 4월 한달동안에도 성, 중앙기관과 각 도, 시, 군 그리고 수많은 기업소, 근로단체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자기들의 지성이 어린 많은 건설기공기와 로동보호복, 식료품을 비롯한 물자들을 안고 건설장에 달려가 공사에 참가한 군인들과 건설자들에게 안구주어 로동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 현장분위기를 높여주었다.

령도자와 인민이 뜻도 승결도 발걸음도 함께 해나가야 이 뜨거운 애국충정은 당이 번게

치면 우리로 화답하는 선군조선의 일심단결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과학기술전당건설은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하고 사회주의문명국을 하루빨리 일떠세우기 위해 우리 당이 대단히 중시하고 각별한 힘을 넣고있는 숭고한 애국사업이다.

성, 중앙기관들과 전국의 수많은 단위 일군들, 근로자들은 과학기술전당건설을 전당적, 전국가적, 전인민적인 사업으로 힘있게 밀고나감에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새로운 평양정신, 평양속도창조의 기상이 세계에 내세우는 쏘집전역에 온 나라 인민들의 뜨거운 애국충정의 마음이 끓어올라 달려가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선군혁명의 한길에서 우리 당과 사상과 뜻을 같이하고 성과를 함께 하며 조국과 인민을 위해 헌신하는 진정한 동지가 되고 일심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지난 4월 한달동안에도 성, 중앙기관과 각 도, 시, 군 그리고 수많은 기업소, 근로단체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자기들의 지성이 어린 많은 건설기공기와 로동보호복, 식료품을 비롯한 물자들을 안고 건설장에 달려가 공사에 참가한 군인들과 건설자들에게 안구주어 로동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 현장분위기를 높여주었다.

령도자와 인민이 뜻도 승결도 발걸음도 함께 해나가야 이 뜨거운 애국충정은 당이 번게

는 건설대상을 맡은 군인들, 건설자들과 한창에 쫓다 자각을 가지고 공사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능동적인 건설기공과 기공자들을 적지 않게 마련하여 보내주었으며 전투장마당에서 새로운 평양정신, 평양속도창조의 열풍이 더욱 세차게 휘몰아치게 하였다.

해의동포호를 도와 대성지도국의 일군들과 정부원들은 공사수

평양시안의 각급 근로단체조직들이 과학기술전당건설사업에 적극 열쳐나서고있다.

락방구역, 평천구역 일군들과 내병원들은 공사에 참가한 군인 건설자들과 함께 자라한 로력적분들을 안고 10월의 대추전장을 땀땀이 들어설 일일일미에 로동보호복을 비롯한 많은 물자들을 마련해가지고 건설장을 찾았다. 이들은 화산식성전선동도

대학을 비롯한 평양시안의 많은 교육기관 일군들과 청년대학생들도 과학기술전당건설에 뚜렷한 삶의 자욱을 아로새길 일일일미에 로동보호복을 비롯한 많은 물자들을 마련해가지고 건설장을 찾았다. 이들은 화산식성전선동도

를 발전설비들을 보다 현대화하고 그 판리를 잘하는데서 찾은 대담하고 튼튼한 작전을 펼치고 있다.

일군들의 면밀한 작전과 지원 밑에 발전소에서는 올해 정초부터 설비보수전투가 힘있게 벌어져 여러대의 발전기들을 대보수하는 성과가 이룩되었다.

발전설비보수전투과정에서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에 의해 전력생산의 새로운 토대가 마련된 발전소에서는 지금 발전설비들의 현대화사업에서도 많은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발전기가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속기가 수차식으로 교체되고 전력생산설비들의 운영효율을 높이기 위한 자동화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있다.

이곳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이미 수차례 자체의 힘으로 대담하게 개조한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수차와 발전기축반의 공극을 줄이는 등 수많은 기술혁신안들을 받아들여 발전설비들의 진전을 극력 줄이고 그 효

를 최대한 높일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였다.

전기기계장치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해당 부분의 과학자들과 창조적적회를 합쳐 발전기건설에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는 절연물을 자체로 만들어 설비보수기일을 계획보다 훨씬 줄일수 있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발전설비보수전투의 불길속에 전력증산의 새로운 토대가 마련된 발전소에서는 지금 발전설비들의 현대화사업에서도 많은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발전기가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속기가 수차식으로 교체되고 전력생산설비들의 운영효율을 높이기 위한 자동화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있다.

이곳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이미 수차례 자체의 힘으로 대담하게 개조한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수차와 발전기축반의 공극을 줄이는 등 수많은 기술혁신안들을 받아들여 발전설비들의 진전을 극력 줄이고 그 효

과학기술전당으로 달리는 애국의 마음

과학기술전당건설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명심하고 공사가 시작된 첫날부터 건설을 물심장면으로 적극 지원하는 애국적투쟁을 높이 발휘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이 깃들어있는 쏘집을 과학의 섬으로 전변시키는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성, 중앙기관들에서 과학기술전당건설을 돕기 위한 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고있다.

부견성과 특혜운성, 경공업성과 수차발전성, 채신성과 상업성, 화학공업성을 비롯한 여러 성, 중앙기관 일군들은 당에서 중시하

활발히 벌리고 군인건설자들과 일도 함께 하면서 건설장의 분위기를 높여주었다.

특히 락방구역내병원위원회에서는 공사가 시작된 때로부터 수심차에 걸쳐 건설자들의 생활에 필요한 각종 필수품들을 마련하여 건설장에 보내주는 아름다운 소명을 발휘하였다.

은하지도국 선한단위들, 인민봉사총국과 여러 단위 일군들과 중앙원들도 성의있는 물자들을 가지고 공사장에 달려가 건설자들의 투쟁을 적극 고무해주었다.

김일성종합대학과 평양외국어

대학을 비롯한 평양시안의 많은 교육기관 일군들과 청년대학생들도 과학기술전당건설에 뚜렷한 삶의 자욱을 아로새길 일일일미에 로동보호복을 비롯한 많은 물자들을 마련해가지고 건설장을 찾았다. 이들은 화산식성전선동도

를 발전설비들을 보다 현대화하고 그 판리를 잘하는데서 찾은 대담하고 튼튼한 작전을 펼치고 있다.

일군들의 면밀한 작전과 지원 밑에 발전소에서는 올해 정초부터 설비보수전투가 힘있게 벌어져 여러대의 발전기들을 대보수하는 성과가 이룩되었다.

발전설비보수전투과정에서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에 의해 전력생산의 새로운 토대가 마련된 발전소에서는 지금 발전설비들의 현대화사업에서도 많은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발전기가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속기가 수차식으로 교체되고 전력생산설비들의 운영효율을 높이기 위한 자동화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있다.

이곳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이미 수차례 자체의 힘으로 대담하게 개조한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수차와 발전기축반의 공극을 줄이는 등 수많은 기술혁신안들을 받아들여 발전설비들의 진전을 극력 줄이고 그 효

를 발전설비들을 보다 현대화하고 그 판리를 잘하는데서 찾은 대담하고 튼튼한 작전을 펼치고 있다.

일군들의 면밀한 작전과 지원 밑에 발전소에서는 올해 정초부터 설비보수전투가 힘있게 벌어져 여러대의 발전기들을 대보수하는 성과가 이룩되었다.

발전설비보수전투과정에서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에 의해 전력생산의 새로운 토대가 마련된 발전소에서는 지금 발전설비들의 현대화사업에서도 많은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발전기가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속기가 수차식으로 교체되고 전력생산설비들의 운영효율을 높이기 위한 자동화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있다.

이곳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이미 수차례 자체의 힘으로 대담하게 개조한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수차와 발전기축반의 공극을 줄이는 등 수많은 기술혁신안들을 받아들여 발전설비들의 진전을 극력 줄이고 그 효

를 발전설비들을 보다 현대화하고 그 판리를 잘하는데서 찾은 대담하고 튼튼한 작전을 펼치고 있다.

일군들의 면밀한 작전과 지원 밑에 발전소에서는 올해 정초부터 설비보수전투가 힘있게 벌어져 여러대의 발전기들을 대보수하는 성과가 이룩되었다.

발전설비보수전투과정에서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에 의해 전력생산의 새로운 토대가 마련된 발전소에서는 지금 발전설비들의 현대화사업에서도 많은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발전기가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속기가 수차식으로 교체되고 전력생산설비들의 운영효율을 높이기 위한 자동화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있다.

이곳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이미 수차례 자체의 힘으로 대담하게 개조한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수차와 발전기축반의 공극을 줄이는 등 수많은 기술혁신안들을 받아들여 발전설비들의 진전을 극력 줄이고 그 효

동발나무생산 125%로 장성 림업부문의 각지 립산, 갱목생산사업소들에서

림업부문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백두의 혁명정신과 창조적투쟁으로 마련한 자랑찬 선물을 안고 10월의 대추전장에 땀땀이 들어설 불같은 열의로 심장을 끓여 동발나무생산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지난 4월에 립산성적인 지표별계획이 성과적으로 수행되었으면 동발나무생산은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125%로 장성하는 자랑찬 성과가 이룩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올해 우리앞에 나선 방대한 투쟁목표를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 인민군장병들과 근로자들이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살며 투쟁하여야 합니다.》

림업성 일군들은 지난 4월에 동발나무생산량을 맡은 립산, 갱목생산사업소들에서 생산을 높이도록 하는 힘을 넣으며 동발나무를 보내주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책임지고 하였다.

생산현장들에 내려간 성과 판

국일군들은 상하차공들과 일도 함께 하고 걸린 고리들을 앞장에서 끌어주면서 로동자들을 동발나무 생산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결과 그 어느때보다도 성과 각지 립산관리국, 립산, 갱목생산사업소들 사이의 령계가 강화되고 동발나무 생산성과가 확대되었다.

함경북도림업관리국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면서 생산전투를 힘있게 벌려 4월 동발나무 생산계획을 113.8%로 넘쳐 수행하는 모범을 보이었다. 관리국일군들은 지난 1.4분기에 거둔 성과와 경험에 기초하여 립산, 갱목생산사업소들에서 자체실정에 맞게 수송전투를 짜고들도록 하였다. 부령림업사업소와 회령, 경원, 온성, 명간갱목생산사업소에서는 물전기제들의 예비부속품을 충분히 마련해놓고 마가나르기에 박차를 가하여 동발나무생산계획을 매일 넘쳐 수행하였다.

평안남도림업관리국아래 북창, 덕천, 양덕, 신양갱목생산사업소와 강원도림업관리국아래 안변, 내포림업사업소의 로동자들과 내부예비를 최대한 탐구동원하고 앞선 작업방법을 널리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와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주호에서 제시된 전투적투쟁을 높이 받들고 석탄증산투쟁에 펼쳐나선 각지 탄광의 탄부들이 막강마당에서 드세한 공격전을 벌리며 생산성과를 확대하였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석탄공업성적으로 지난 4월 한달동안에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9만여의 석탄이 더 생산되어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보내여졌다.

다음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지난해 석탄공업부문과 화력발전소들에서 혁신을 일으킨 기세로 석탄과 전력생산을 늘리며 전기를 극력 절약하기 위한 투쟁을 벌려 당면한 전력수요를 보장하는것과 함께 전기문제를 전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현실성있게 세워나가야 합니다.》

석탄공업성에서는 각지 탄광 일군들이 현행생산을 다그치는 한편 생산능력을 확장하고 예비제탄량을 늘일수 있는 골전에 계속 힘을 넣도록 하기 위한 생산조직과 지휘를 잘하도록 하였다. 석탄공업부문의 각급 당조직들에서는 경사로운 4월을 자랑한 로력적투쟁으로 빛내려는 일군들과 탄부들의 양양된 열의

9만여t의 석탄을 더 생산 공업부문에

가 그대로 석탄증산성적으로 이어지도록 정치사업을 참신하게 벌렸다.

지난 4월에 나라의 석탄생산에서 큰 몫을 맡고있는 순천지구의 탄광들에서 련일 높은 생산실적이 기록되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2.8직 동천탄광에서는 해당 과학연구기관과의 긴밀한 령계밑에 가지있는 연구성과들을 적극 도입하고 석탄채취부와 막강작업의 기계화비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과 갱단위별사회주의경쟁이 맹렬하게 벌어져 매일 많은 량의 석탄이 생산되었다.

천성탄년탄광, 명대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도 자체실정에 맞는 여러가지 채탄방법을 대담하게 받아들여 석탄생산에서 혁신을 창조하였다.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일군들과 탄부들도 화력발전소에 필요한 석탄을 최우선적으로 생산보장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렸다.

개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에서는 전망이 좋은 주요개소들에 골전력량을 집중하고 설비와 자체모장을 잘하여 석탄생산량을

늘이였다. 기업소아래 조양탄광, 개천탄광, 무전대천년탄광, 신림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증산투쟁에 박차를 가하여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많은 량의 석탄을 더 생산하여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보내주었다.

북창지구탄광련합기업소아래 남덕, 인포탄광을 비롯한 여러

단위들에서는 골전을 확고히 앞세워 예비제탄량을 늘이는 한편 화차수송과 화물자동차수송을 잘하여 골지의 대용량까지의 승계를 끊임없이 높여주었다.

독장지구탄광련합기업소아래 독장천년탄광, 통산탄광, 명화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도 불굴의 정신력을 높이 발휘하며 석탄생

산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켰다. 안주, 강동, 함남지구의 여러 탄광 일군들과 탄부들도 자신들이 맡은 임무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드세한 공격전을 벌려 많은 석탄을 생산하였다.

지금 석탄공업부문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대고조전건설에 영웅적위훈을 아로새길 불타는 열의에 넘쳐 수천척지하탄광에서 비연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고있다.

본사기자



북창지구탄광련합기업소 남덕탄광에서 본사기자 김진명 찍음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연에너지를 적극 개발리용하자

지열을 리용하니 얼마나 좋은가

평양국제축구학교를 찾아서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온천, 지하수, 지열열수를 적극 벌려 지하수와 지열자원을 다 찾아내어 종합적으로 리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평양국제축구학교를 찾았을 때는 여름이 깊어지고 있었다. 봄이라고 하지만 맑은 온천이 사늘한데 불꽃은 교사로 들어서는 순간 훈훈한 공기가 우리를 포근히 감쌌다.

《지열을 리용한 덕입니다. 평양에서는 원수님께서 우리 학교를 찾으시였을 때는 매우 무더

운 여름날이었습니다. 그날 평양에서는 원수님께서 학교의 평안방식대에 대해 로해하시고 학생들의 생활조건을 더 잘 보장할수 있도록 지열발전방식체를 세워주실 때 대한 은정어린 말씀을 하시였습니다.》

동행한 학교일꾼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가 먼저 들린 곳은 지하에 꾸러진 기계실이었다. 우리 당의 은정속에 마련된 지열발전기들이 고도로 동용을 울리고있었다.

우리는 여기서 설비관리부 맡은 한 일꾼을 만나 지열발전방식 설비의 기술적특성과 작용원리

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의 말에 의하면 수심 1m 땅속에서 끌어올리는 지열수의 온도는 계절에 관계없이 15°C정도 된다고 한다. 이렇게 일정한 온도의 지열수가 열 펌프에 의해 가열 또는 냉각되어 겨울에는 18°C, 여름에는 15~20°C의 실내온도를 보장한다고 한다. 겨울과 여름뿐 아니라 다른 계절에도 항상 온도를 일정하게 보정할수 있게 되어있다.

계절과 기후에 관계없이 원천이 풍부하여 리용이 아주 효과적이며 다른 난방, 냉방설비들에 비해 훨씬 적은 전력을 쓰면서도 열효율이 매우 높다고 하니 얼마나 좋은가.

겨울철에만 보아도 건물의 난방을 보장하는데 석탄을 쓰지 않아도 이산화탄소를 방출하지 않게 되고 가스나 면지에 의한 공해도 없으므로 지열의 리용은 문화적이고 깨끗한 환경을 마련하며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뚜렷한 우월성을 가지고있다는 생각

이 절로 들었다. 학교의 모든 방들은 물론 복도에까지 계절에 따라 펌프와 온도를 내보내는 설비들이 설치되어있어 여러개의 호통들이 하나로 연결된 건물전체에 학생들의 학습과 생활에 적합한 온도가 보장되고있다고 일꾼은 이야기하였다.

우리는 평양에서 원수님께서 다녀가신 학생들의 침실에도 둘러보았다.

액정텔레비전과 후화기, 벽장식 식으로 된 특색있는 책상, 2층 침대의 그로 하여 생긴 넓은 공간 등 모든것이 학생들의 심리에 맞게, 학습과 생활에 편리하게 아담하게 꾸러진것이 우리의 마음을 끌어당겼다.

평양에서 원수님의 세심한 보살핌에 의해 마련된 2층침대에서는 소학년의 나이된 학생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텔레비전을 보고있었다.

우리가 여기서 생활해보니 어떤가고 묻자 해산사에서 왔다는 한 학생은 이렇게 말하였다. 《하루를 편안히 쉬고 한층같이 달린 목욕탕에서 거뜨하게 목욕을 하고나서 이렇게 따뜻한 방에서 학습도 하고 텔레비전도 보니 정말 좋습니다. 평양에서는 원수님의 따뜻한 사랑속에 겨울에도 조금도 추운줄 몰랐습니다.》



생기는 진동을 막기 위하여 세계 방향으로 돌리던 버팀목은 돌리지 않았다. 콩크리트기둥을 리용하는 조건에서 버팀목을 꼭 놓아야 한다는 법은 없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이를 위한 과학기술문제들을 해결하는것을 기술혁신과제라고 정하고 대중의 창조적의의와 지혜를 발동시켜 줄기만 투쟁을 벌여 팔레의 문을 열어놓았다. 이렇게 분국에서는 보다 작은 면적에 버팀목이 없는 콩크리트기둥을 세우고 2대의 전력발전기를 설치하여 능동할수 있게 되었다.

현재 개성시정보통신국에서는 태양열과 풍력을 리용한 전력생산으로 통신보장도 한층더 증대없이 책임지고 진행되고있다. 이곳 일꾼들과 농업원들은 앞으로 풍력발전기를 더 설치하여 통신보장은 물론 건물들의 공기조화기까지도 리용할수 있게 할 높은 목표를 세우고있다.

이 단위에선나 이틀처럼 당의 의도를 심장으로 접수하고 그 관철을 위한 방도를 찾고 자제의 힘으로 이룩하게 실천해나갈 때 나라의 긴장한 전력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지혁철

농촌마을의 풍력발전기 자랑

황주군 철도리에서 황주군 철도리에 가면 류달리 눈길을 끄는 하나의 이채로운 풍경이 있다. 농장의 이르는 곳마다에 설치된 풍력발전기의 풍차들이다. 수십 개의 풍차들은 이곳 농업근로자들의 날랜 일손 써마냥 기세좋게 돌아고 있었다. 바라볼수록 멋이 흘러가던 바람이 전기가 되어 농업근로자들에게 기쁨을 주고있다고 생각하니 농장을 찾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은 저도모르게 빨라졌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풍력발전기를 놓으면 대기를 오염시키지 않고 안전하게 전기를 생산할수 있습니다.》

알고보니 농장에서는 벌써 여러해전부터 풍력발전기의 덕을 단단히 보고있었다. 지난 시기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자기 고장을 더 살기 좋은 행복의 락원로 꾸리기 위해 힘찬 투쟁을 벌여왔다.

그 대표적사례가 바로 자기 고장의 지대적특성을 잘 고려하여 농장에 설치한 풍력발전기이다. 철도리는 대동강과 세평강의 합수목에 위치하고있는것으

로 하여 바람이 세게 분다. 이러한 자연지리적조건을 효과있게 리용하기 위해 리의 일꾼들은 풍력발전기를 놓아 그 덕을 보게 할것을 결심하였다.

일꾼들은 기계화작업반원들에게 3대혁명소조원들과 합심하여 풍력발전기를 받아들이기 위한 기술적토대를 마련할데 대한 과업을 주고 적극 펴밀어주었다.

기계화작업반원들과 3대혁명소조원들은 풍력발전기의 덕을 보고있는 여러 단위들이 나가 좋은 경험을 배워오는 한편 그것을 자기 고장의 특성에 맞게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줄기차게 벌려나갔다.

제순으로 행복을 창조하려는 농장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은 알찬 결실을 안아왔다. 드디어 지대적특성과 자제의 실정에 맞는 풍차기 제작완성되어 처음에는 작업반들에 설치되었다. 이것은 약한 바람에도 가볍게 돌면서 전기를 생산하였다.

농장에서는 작업반들에 설치된 풍력발전기를 리용하면서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는것과 함께 풍력발전기를 능동할것을 위해 설치하기 위한 사업을 동시에 밀고나갔다. 그리하여 점차 많은 실업집들에 풍력발전기가 설치되어 그 덕을 단단히 보게 되었다.

농장에서는 풍력발전기를

만들기 위한 자체들도 농업근로자들을 발동하고 내부에비를 탐구동원하는 방법으로 마련하였다.

농장에서 만든 풍력발전기는 여러모로 좋은 점을 가지고있다. 약한 바람이 불어도 풍차가 잘 돌아가는것은 물론 센 바람이 불 때면 풍차의 각도를 조절할수 있게 되어있으며 필요한 전기가 축전지에 다 충전되면 날개를 고정시켜 놓을수도 있다.

풍력발전기에 의한 전기생산으로 큰 덕을 보고있는 농장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은 풍력발전기의 정상운동을 위한 사업에 언제나 많은 관심을 돌리고 있다.

보통 2~3세대들에서 공동으로 리용하는 풍력발전기들의 능력은 1KW정도이며 축전지에 충전하면 한주일정도도 얼마든지 조명을 보장하면서도 텔레비전을 볼수 있다고 한다.

자체로 풍력발전기를 만들어 설치해놓고 전기덕을 보고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오늘도 철도리의 불밝은 창가마다에서 울려나오는 행복의 웃음소리는 당정책을 심장으로 받아들여 농장사람들이 자기 고장의 행복을 창조해나가는 걸음이 여기에 곧 합심 애국이고 조국을 위한 헌신이 있다는 진리를 깨우쳐주고있다.

본사기자 김경철

에너지를 저축하는 판성차방식 등이 있다.

최근에는 풍력발전기나 태양발전지에서 나오는 전기를 수소를 생산하여 저장하였다가 필요전기로 보내어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 21세기 기술로 주목되고 있다.

평양에서 원수님께서 높이 평가하신 자연에너지발전소와 같이 풍력을 물론 태양 빛을 비롯한 여러가지 종류의 자연에너지를 결합하는 발전소 건설을 구상하면 전력생산의 안전성을 보다 높일수 있다.

자연에너지자원은 그 어디에나 있으며 그것을 자기 실정에 맞게 효과적으로 리용한다면 규모가 작은 지역이나 단위들에서 얼마든지 전기문제를 자체로 풀수 있다.

우리는 수력발전소와 함께 풍력발전기, 태양발전기, 버가스발발전기, 메탄가스발발전기 등도 전력에 대한 수요를 자체로 보장하고있는 단위들처럼 자연에너지를 적극 리용할데 대한 당정책을 실천에 구현해나가야 할것이다.

국가과학원 자연에너지연구소 부소장 박사 김강일

결심하고 달라붙기라이다

개성시정보통신국에서

비롯한 일꾼들은 청사건물이 비교적 높은 조건에서 풍력발전기를 리용한 전기생산을 동시에 밀고나갈것을 결심하였다. 하지만 결코 쉽게 해결될 문제라 아니었다. 개성시는 분지로서의 지형상특성을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다른 지방에 비해볼 때 비교적 바람이 적거나 약한것은 물론 바람방향도 수시로 변한다. 때문에 풍력발전기에 의한 전기 생산은 불합리하다는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견해였다.

국적의 일꾼들과 농업원들은 안락다는 견해가 아니라 이어야 해하는 관점에서 풍력발전기에 의한 전기생산을 위한 방도를 모색해나갔다. 현지확인을 해본데 의하면 바람속도와 방향도 관측하고 신로에 의한 도중손실을 줄일수 있는 유리한 점을 있는 곳으로 풍력발전기 2대를 동시에 설치하기에는 면적이 제한되어 있었다. 온 집안이 펼쳐나 집체적지혜를 합치는 과정에 풍력발전기날개들의 높이차이를 일정하게 주면 2대를 동시에 설치할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안이 제기되었다.

이곳 일꾼들과 농업원들이

내용은 기발한 착상은 해당 과학연구기관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 과학자들은 긴장한 전력문제를 자체로 해결하기 위해 한마음한뜻으로 펼쳐나선 이곳 일꾼들과 농업원들과 지혜를 합쳐 면적이 제한되어있는 청사 지붕부에 풍력발전기 2대를 동시에 설치할수 있는 과학기술적 담보를 마련하였다.

결과 국에서는 크기가 똑같은 2대의 기둥을 설치할 때 제기둥은 문제들을 고려하여 크지 않은 면적을 가진 청사지붕부에 높이가 서로 다른 2대의 풍력발전기를 설치하여 전기를 생산할수 있게 되었다.

개성시정보통신국의 자연에너지리용에서 찾아보게 되는 또 하나의 좋은 점은 원가를 절감하고 최대한의 질을 보장하고있는것이다.

이로부터 국에서는 어느 한 분국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할 때에 는 철기둥 대신 철근을 넣은 콩크리트기둥을 세우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날개가 회전할 때

생기는 진동을 막기 위하여 세계 방향으로 돌리던 버팀목은 돌리지 않았다. 콩크리트기둥을 리용하는 조건에서 버팀목을 꼭 놓아야 한다는 법은 없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이를 위한 과학기술문제들을 해결하는것을 기술혁신과제라고 정하고 대중의 창조적의의와 지혜를 발동시켜 줄기만 투쟁을 벌여 팔레의 문을 열어놓았다. 이렇게 분국에서는 보다 작은 면적에 버팀목이 없는 콩크리트기둥을 세우고 2대의 전력발전기를 설치하여 능동할수 있게 되었다.

현재 개성시정보통신국에서는 태양열과 풍력을 리용한 전력생산으로 통신보장도 한층더 증대없이 책임지고 진행되고있다. 이곳 일꾼들과 농업원들은 앞으로 풍력발전기를 더 설치하여 통신보장은 물론 건물들의 공기조화기까지도 리용할수 있게 할 높은 목표를 세우고있다.

이 단위에선나 이틀처럼 당의 의도를 심장으로 접수하고 그 관철을 위한 방도를 찾고 자제의 힘으로 이룩하게 실천해나갈 때 나라의 긴장한 전력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지혁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지금 있는 발전소들에서 전력생산을 최대한으로 늘이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것과 함께 긴장한 전력문제를 근본적으로 풀기 위한 전방계획을 바로 세우고 그 실천을 위한 투쟁을 힘써 벌이며 수력자원을 위주로 하면서 풍력, 지열, 태양열을 비롯한 자연에너지를 리용하여 전력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난 3월 어느 한 인민군부대에 일떠선 현대적인 자연에너지발전소를 돌아보시면서 인민군인들과 국가과학원 과학자들이 군민협동작업으로 풍력과 태양열을 리용하여 날씨와 계절에 구애없이 전기를 생산할수 있는 종합적인 전력생산기지를 훌륭히 꾸린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자연에너지발전소는 말그대로 자연에너지를 리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이다. 여기서는 수력발전소와 함께 풍력발전소, 태양발전소, 태양열발전소, 지열발전소, 수축력발전소, 파도발전소 등이 속한다. 생물질을 직접 연소시키거나 가스화하여 연소시켜 증기

라민이나 가스터빈 또는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도 자연에너지발전소에 속한다고 볼수 있다.

자연에너지기를 적극 개발 리용하는것은 오늘 나라의 긴장한 전기문제를 해결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석탄이나 원유, 천연가스, 핵연료자들은 자연적으로 형성된것이기 하지만 수억년이 되는 형성기간에 비하여 소비되는

되지 못한것은 에너지기밀도가 작고 시간적으로 변동이 심한 자연에너지의 특성에 알맞는 에너지수집 및 리용기술이 부족하였기때문이다.

오늘날 과학기술은 인간이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자연에너지를 충분히 리용하고 리용할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 자연에너지기를 리용하는 전력생산체제를 세우는것은 오늘 세계적추세로 되고있다.

자연에너지를 저축하는 판성차방식 등이 있다.

최근에는 풍력발전기나 태양발전지에서 나오는 전기를 수소를 생산하여 저장하였다가 필요전기로 보내어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 21세기 기술로 주목되고 있다.

평양에서 원수님께서 높이 평가하신 자연에너지발전소와 같이 풍력을 물론 태양 빛을 비롯한 여러가지 종류의 자연에너지를 결합하는 발전소 건설을 구상하면 전력생산의 안전성을 보다 높일수 있다.

자연에너지자원은 그 어디에나 있으며 그것을 자기 실정에 맞게 효과적으로 리용한다면 규모가 작은 지역이나 단위들에서 얼마든지 전기문제를 자체로 풀수 있다.

우리는 수력발전소와 함께 풍력발전기, 태양발전기, 버가스발발전기, 메탄가스발발전기 등도 전력에 대한 수요를 자체로 보장하고있는 단위들처럼 자연에너지를 적극 리용할데 대한 당정책을 실천에 구현해나가야 할것이다.

국가과학원 자연에너지연구소 부소장 박사 김강일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므로 제생 가능성이 없다.

그러나 자연에너지는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소비되는데 비해 그 량이 무진장할뿐 아니라 끊임없이 재생된다. 또한 화석연료와는 달리 그 리용과정에서 공해가 없다.

물론 생물질을 연소시킬 때 탄산가스가 나오지만 그 량은 생물체가 성장과정에서 흡수하는 양과 맞먹으므로 총적으로는 탄산가스방출량이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생물질에너지도 깨끗한 에너지에 속한다.

지난 시기 수력자원을 제외한 자연에너지자원이 널리 리용

자연에너지를 발전소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풍력발전기를 놓으면 여러모로 좋습니다.》

개성시정보통신국의 자연에너지리용에서 찾아보게 되는 좋은 점은 자기 단위에서 필요한 전력문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무조건 자체로 해결하겠다는 확고한 자세와 결심이다.

국에서는 이미 나라의 전력사정이 긴장상태에 맞게 태양열 발전기를 리용하여 필요한 전력을 보장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해비침볼에 구애되는 부족점이 있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국장 동철남동무를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풍력발전기를 놓으면 여러모로 좋습니다.》

개성시정보통신국의 자연에너지리용에서 찾아보게 되는 좋은 점은 자기 단위에서 필요한 전력문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무조건 자체로 해결하겠다는 확고한 자세와 결심이다.

국에서는 이미 나라의 전력사정이 긴장상태에 맞게 태양열 발전기를 리용하여 필요한 전력을 보장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해비침볼에 구애되는 부족점이 있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국장 동철남동무를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풍력발전기를 놓으면 여러모로 좋습니다.》

개성시정보통신국의 자연에너지리용에서 찾아보게 되는 좋은 점은 자기 단위에서 필요한 전력문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무조건 자체로 해결하겠다는 확고한 자세와 결심이다.

국에서는 이미 나라의 전력사정이 긴장상태에 맞게 태양열 발전기를 리용하여 필요한 전력을 보장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해비침볼에 구애되는 부족점이 있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국장 동철남동무를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풍력발전기를 놓으면 여러모로 좋습니다.》

개성시정보통신국의 자연에너지리용에서 찾아보게 되는 좋은 점은 자기 단위에서 필요한 전력문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무조건 자체로 해결하겠다는 확고한 자세와 결심이다.

국에서는 이미 나라의 전력사정이 긴장상태에 맞게 태양열 발전기를 리용하여 필요한 전력을 보장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해비침볼에 구애되는 부족점이 있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국장 동철남동무를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풍력발전기를 놓으면 여러모로 좋습니다.》

개성시정보통신국의 자연에너지리용에서 찾아보게 되는 좋은 점은 자기 단위에서 필요한 전력문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무조건 자체로 해결하겠다는 확고한 자세와 결심이다.

국에서는 이미 나라의 전력사정이 긴장상태에 맞게 태양열 발전기를 리용하여 필요한 전력을 보장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해비침볼에 구애되는 부족점이 있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국장 동철남동무를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풍력발전기를 놓으면 여러모로 좋습니다.》

개성시정보통신국의 자연에너지리용에서 찾아보게 되는 좋은 점은 자기 단위에서 필요한 전력문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무조건 자체로 해결하겠다는 확고한 자세와 결심이다.

국에서는 이미 나라의 전력사정이 긴장상태에 맞게 태양열 발전기를 리용하여 필요한 전력을 보장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해비침볼에 구애되는 부족점이 있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국장 동철남동무를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풍력발전기를 놓으면 여러모로 좋습니다.》

개성시정보통신국의 자연에너지리용에서 찾아보게 되는 좋은 점은 자기 단위에서 필요한 전력문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무조건 자체로 해결하겠다는 확고한 자세와 결심이다.

국에서는 이미 나라의 전력사정이 긴장상태에 맞게 태양열 발전기를 리용하여 필요한 전력을 보장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해비침볼에 구애되는 부족점이 있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국장 동철남동무를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풍력발전기를 놓으면 여러모로 좋습니다.》

개성시정보통신국의 자연에너지리용에서 찾아보게 되는 좋은 점은 자기 단위에서 필요한 전력문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무조건 자체로 해결하겠다는 확고한 자세와 결심이다.

국에서는 이미 나라의 전력사정이 긴장상태에 맞게 태양열 발전기를 리용하여 필요한 전력을 보장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해비침볼에 구애되는 부족점이 있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국장 동철남동무를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제17차 국내외 동포들의 평양의학과학도론회 참가자들 꽃바구니 진정

만수대창작사가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5일 제17차 국내외 동포들의 평양의학과학도론회 참가자들이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그들의 가정을 위해 기술인 사랑과 정은 그 열매였었다. 직장일을 하는 바쁜 속에서도 매일이 저주느낌과 자기그만한 생활상대로를 낫기세라 늘 관심을 돌리면서 영예군인을 위해 줄 때면 리종길동무의 가슴은 저도 모르게 뜨거워지곤 한다.

연세군이 리종길동무가 가져

꽃바달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다.

꽃바구니의 댕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말이 쓰여져있었다. 【조선중앙통신】

연세나 친구가 되어

강릉군 음 156인민반에서 살고있는 영예군인 리종길동무에게는 친철우처럼 다정하게 지내는 시할머니가 많다. 그들속에는 군상연립수로 동자 김준애동무도 있다. 김준애동무가 리종길동무를 알게 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지난 10여년간 영예군인과

그의 가정을 위해 기술인 사랑과 정은 그 열매였었다. 직장일을 하는 바쁜 속에서도 매일이 저주느낌과 자기그만한 생활상대로를 낫기세라 늘 관심을 돌리면서 영예군인을 위해 줄 때면 리종길동무의 가슴은 저도 모르게 뜨거워지곤 한다.

연세군이 리종길동무가 가져

꽃바달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다.

꽃바구니의 댕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말이 쓰여져있었다. 【조선중앙통신】

국제조산원의 날에 즈음한 행사 진행

국제조산원의 날에 즈음한 행사가 5일 평양시에서 진행되었다. 보건부문, 선, 중앙기관, 근로단체, 출판보도부문 일꾼들과 주조 유엔인구기금 대표를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대표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행사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설자들은 이번 행사가 여성건강관리에서 조산원들의 역할

을 더욱 높이기 위한 문제를 주제로 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여성들에 대한 깨끗하고 안전한 해산방조와 책임적인 산전, 산후의료봉사를 통하여 임신모들과 갓난아이들의 사망률을 낮추는것은 조산원들이 맡고있는 중요한 임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이어 모범적인 조산원들의

경험도론들이 있었다. 행사에서는 어머니당의 따뜻한 사랑의 결정체로 훌륭히 일하며 여성들의 건강증진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는 평양시내에 대한 소개편지들이 방영된 다음 축하공연이 있었다.

참가자들은 해산실과 치료실, 입원실을 비롯한 평양시내의 여러곳을 돌아보았다.

월남에서 진행된 남부월남해방 및 통일 40돐 기념행사에 참가하였던 대외문화협력위원회 부위원장인 서호원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월남친선협회대표단이 5일

월남에 갔던 조선월남친선협회대표단 귀국 귀국하였다. 비행장에서 관계부문의 일꾼과 주조 월남사회주의공화국

월남에 갔던 조선월남친선협회대표단 귀국 귀국하였다. 비행장에서 관계부문의 일꾼과 주조 월남사회주의공화국

창조의 열정과 지혜로 가꾸는 대지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 국로환경보호성돌격대 대대장 한강택동무와 돌격대원들

세포지구의 바람은 사납다. 하지만 그것을 쳐물리치는 역센 힘이 있다. 바로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자들이 발하는 창조의 열정이다. 국로환경보호성돌격대 일꾼들과 돌격대원들도 그런 열정과 지혜로 세포동판을 인민의 만복을 꽃피우려는 사회주의대지로 가꾸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자들은 경험이 없고 부족함이 많지만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투쟁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세포전역에서 사람들을 결단시키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돌격대에는 다른 단위가 건설하던 대상까지 말아 완공하며 자연환경조성도 더 할데 대한 과업이 제기되었을 때였다. 이 말았던 과업만도 아름찬 것만만 일꾼들과 돌격대원들의 마음은 무거웠다. 그런데 이들 앞에 나선 대대장 한강택동무의 목소리는 뜻밖에도 명쾌했다.

《자연은 정복해나가는 진짜배기돌격대원이라면 이쯤한 일이야 웃으면서 해제껴볼만 한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의 이런 말을 듣는 일꾼들과 돌격대원들은 가슴이 확 열리는것만 같았다.

그렇다. 우리는 돌격대원들이다. 수령의 유혹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맨 앞장에서 건인불발의 의지로 투쟁해나갈것을 조직과 집단앞에 굳게 맹세하고 사회적으로 달려온 우리들이여. 이들은 그 맹세를 되새기며

자리를 차고 일떠섰다. 일꾼들은 작전을 전투적으로 하였다. 종전에는 두개의 중대가 대대의 일감을 맡았었다. 하지만 이제 는 한개 중대로 대대의 일감을 맡기로 했다. 일감이 두배로 불어났지만 에로와 난관도 불어났지만. 그러나 일꾼들과 돌격대원들의 불같은 열정은 그것을 극복할수 있는 지혜를 낳았다.

새로 맡은 대상인 집집순우리 건설을 할 때였다. 2층으로 된 건물지붕에 제양을 대야 하였는데 회를 받칠 지 버팀대가 없었다. 돌격대원들은 토론을 거듭한 끝에 방도를 찾았다. 1층 층마루에 통나무를 깔고 건물 밖으로 나가도록 길게 늘어놓고 거기에 이미 쓰던 짧은 버팀대를 세워 회를 받친 다음 제양을 달자는 것이었다. 이 방법을 받아들인 결과 건 버팀대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해야 했던 적지 않은 시간과 기쁨을 절약할수 있게 되었다.

모든것을 우리 손으로, 우리 식대로.

일꾼들은 이런 림장에서 기능공문제도 해결하였다. 한강택동무는 성일군들과의 관계일꾼 돌격대원들이 수공업의 기능공들과 함께 일하며 석달동안에 당당한 기능공들로 자랄수 있도록 했다. 기능이 높아지면서부터 여러가지 기공기가 요구되자 돌격대원들은 자체로 그것을 하나하나 마련해나갔다. 이들은 돌격대생활에 필요한것들이 있었지만 집에 편지를 쓸 때면 생활필수품이 아니라 기공구들을 보내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그리하여 2중대 대원들만 보더라도 매 사람이 삼과망치로부터 호미에 이르기까지 기공구들을 다 마련하고 일의 작업을 할수 있는 준비를 갖추었다. 일감을 높고는 서로 양보를 모르며 유쾌한 경쟁을 벌이던 한 중대원들, 낮에는 자연출판에 먹이풀씨를 뿌리고 밤이면 짐은 나무부러뜨기 세찬 바람에 드러나지 않도록 밭이 추기를 하며 정열을 쏟아부은 돌격대원들, 언제인가 성형일꾼이 내리워 제기할것을 잊었고고 묻자 경애하는 원수님을 만나면 그의 손을 잡아모으고싶다고 절절히 말했던 청년들...

경애하는 원수님께 백옥같은 충정을 바쳐가는 이들을 위해

자원이 있다고 하면서 성일군들은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에 필요한것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해주었다. 제순으로 돌격대원들의 식사차량료를 만들고 생활수도 꼭꼭 차려주었지만이나라 자제운반길을 갔다대면 그들을 위해 장갑, 신발을 비롯한 생활필수품을 하나라도 더 마련하기 위해 애쓰는 대대장, 그는 후방일꾼들이 돌격대원들의 식생활조작을 하는데서 어쩌다 부족점이 나타나면 그것을 비상사정으로 여기며 때로는 그들이 중대에 나가 식당근무를 서게 한 일도 있었다.

정치지도원 리영식동무는 이처럼 뜨거운 인정미를 지니고 돌격대원들의 만행구실을 잘하

기 위해 애쓰는 대대장의 사업을 맡았을 도와주었다. 지난 3월이었다. 자체를 싣고온 대대장이란 화물자동차가 넘어야 할 높은 경계에 갑자기 눈이 내렸다. 성적이 불같은 한강택동무가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거기에 위험을 넘으리라라는것을 알고 있던 그는 돌격대원들과 함께 이른바침 거기에 먼저 올라가 눈을 쳐내고 흙을 퍼며 화물자동차가 안전하게 다닐수 있도록 하였다.

대대장 한강택동무와 돌격대원들은 이처럼 서로 돕고 이끌며 앞선 단위들의 대렬에서 10월의 대추경장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고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성철



